

직거래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원 토대 마련

농수산 관련 법안 잇단 국회 통과

수산업, 농업서 분리 독자 관리

농수산 관련 법안 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 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산업 관련 법안은 그간 농업·농촌 분야와 통합돼 관리돼 오던 수산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시행과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업 활성화 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세 가지다.

우선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직거래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이 힘을 받게 됐다. 지역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그간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화되고,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에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의 정의,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 법 제정으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351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 관련 제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서비스까지 수산업 전반의 기본방향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통과한 농수산 관련 법안 제정안 주요 내용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 명확화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 ▷ 수산업·수산업 정의 신설
 - ▷ 수산업의 날 시행
 -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 ▷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 ▷ 수산발전기금 설치
-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 ▷ 수산종자산업의 적용 대상 확대
 - ▷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시설 현대화 지원
 - ▷ 수산동물종자의 체계적인 개량 및 관리 제도 신설
 -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기술연구 단지 조성

그간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촌 분야와 공동으로 규정돼 있어, 수산업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면허 등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 지원 등 수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수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수산업의 날 시행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어촌관련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수산업 및 어촌 관련 내용을 분리해 담았다.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도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기반이며 생명공학 기술(BT·Biotechnology)을 요구하는 미래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물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농수산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산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그간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수산종자산업 관련 조항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김재수 aT 사장의

푸른농촌 이야기

밀라노 엑스포와 광주 김치타운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밀라노는 '명품 1번지'로 통하는 역사적 도시다. 산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문화예술도 화려한 역사를 자랑한다. 전 세계에서 밀라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곳에서 지난 5월부터 '밀라노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인류의 미래 먹거리 대안을 찾자'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밀라노 엑스포는 세계 145개국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10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엑스포에는 전 세계 2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식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달걀아리를 형상화한 한국관은 우리 고유의 저장 및 발효식품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한식과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는 2013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치가 아니라 '김치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김장문화가 등재된 것이다.

유네스코는 특정 음식을 문화유산으로 올릴 경우, 상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음식 자체를 무형유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음식 '문화'를 유산으로 인정하는데, 이것도 심사가 엄격하다. 김장문화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단 6종의 음식문화만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제배방식부터 조리, 가공, 음식을 먹고 나누는 과정까지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 인정받아야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김장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지키고 보존해야 할 식문화가 많다. 기다림의 미학과 발효의 과학을 담은 각종 장류, 장아찌, 젓갈 등을 비롯해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비빔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음식이자 그 자체가 고유한 식문화이다. 코소요리로 제공되는 서양식 식사와 달리 여러 반찬을 한 번에 차려내는 '한상차림'도 우리나라 식문화의 특징이다.

밀라노 엑스포를 보며 광주를 떠올린다. 광주는 오래 전부터 '예향의 도시'로 유명하다. 필자가 농림부 유통국장으로서 재직할 때 광주 남구에 '김치타운'을 건설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제한, 사전 준비 미흡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어 감사원 지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2010년 문을 열 수 있었다.

김치타운에는 김치박물관과 첨단시설의 김치가공공장, 여러 종류의 김치를 직접 담가볼 수 있는 김치 체험장이 있다. 광주시가 내년 연말까지 발효가공·저장시설과 신소재 기능성식품 가공시설을 만들어 김치 전문발효식품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광주 김치타운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다양화이다.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시대가 아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문화를 누리는 시대다. 먹거리들을 통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은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세계적인 웰빙식품으로 손꼽히는 김치만 활용해도 수백가지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광주 지역의 다양한 김치와 향토음식에 현대적인 문화마인드를 가미하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빛고를 광주를 밀라노 못지않은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자.

보라색 채소 '콜라비' 다이어트 효과 입소문에 매출 쑥쑥

대형마트 판매량 10% 이상 늘어

40~50대 중장년층에도 큰 인기



보라색 채소 콜라비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대형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3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달 27일까지 콜라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다. 지난해 콜라비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16.7%로, 최근 2~3년간 콜라비를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도 올해 1~4월 콜라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 거주자인 콜라비는 순무와 양배추를 교배 개량한 채소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하며 특유의 포만감을 주는 회복 성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 C 함량도 상추의 5배나 많아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줄기 부분은 특유의 단맛과 아삭한 식감 덕에 주로 샐러드, 김치, 무침 등으로 즐기고 넓적한 잎줄기 부분은 씹거나 녹즙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콜라비의 칼로리는 100g기준 27kcal에 불과해 방송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개되면서 최근에는 제중 감량을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마트 윤샘이 채소 바이어는 "콜라비는 2~3년 전만 해도 20~30대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 찾는 채소였지만 최근에는 40~50대 중장년층에서도 많이 찾는 인기 다이어트 채소"라고 말했다. 콜라비의 가격은 재배 농가가 늘면서 오히려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의 콜라비의 평균 도매가(15kg, 상품기준)는 2013년 4월 2만7111원에서 지난해 4월 2만 1967원, 올해 4월 1만6152원으로 꾸준히 내려갔다.

마트들은 콜라비가 자주 품귀 현상을 빚자 구매 물량을 늘리는 추세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는 11~2월 수확한 제주산 콜라비를 3월까지밖에 판매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구매 물량을 늘려 5월 현재까지도 제주산 콜라비를 맛볼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제천, 화천 등에서 수확한 콜라비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얼굴

"저수지 자원조사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확대"

김행운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본부 상임이사



"수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농업 기반시설과 선제적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본부 상임이사로 취임한 김행운(58) 전 전남본부장은 "수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취약·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 관리 저수지에

대한 자원조사를 벌여 사업 여건이 좋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발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순창 출신으로 서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생물산업시스템 석사를 취득했다. 1977년 공사에 입사해 구례지사장, 광주지사장, 전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분양/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교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층별	계약면적(㎡/평)	업종	비고
지하층	1,337(404)	주차장	
1층	1,000(302)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2층	878(265)	은행, 병원, 커피숍	
3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4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5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6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7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8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임대료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

투데이 경매

운암동 대단위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 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운암동 공구의 거리 빌딩
6차선 대로변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건물
공구, 자재 업체 입점추천
대지220㎡ 건물605㎡
감정가7억4백
최저가4억9천

진월동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임대수익률 좋은 빌딩
병원, 학원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
대지845㎡ 건물1343㎡
감정가16억3천
최저가11억4천

담양군 대덕면 광주~20분거리에
위치한 물류센터건물
대형차 진출입 여건충족
대지 18234㎡ 건물 3672㎡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NAVER 7244년 단비플라워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축하와림3년 근조화림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